

# 사상 最多作家 ‘아시모프’

인류사상 가장 많은 책을 쓴 과학자로 알려진 아이작 아시모프(Issac Asimov)는 1992년 4월 6일 심장병으로 타계할 때까지 5백종에 가까운 저서를 남겼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서를 쓴 사람은 5백종 이상을 펴낸 영국의 미스터리작가 존 크리지로 기록되어 있으나 과학을 비롯하여 문학과 종교에서 역사와 어린이 읽을 거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그처럼 많은 저서를 남긴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는 분당 90단어를 타자하면서 50세가 되기 전에 1백종을 출간했으나 그로부터 저술작업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어 다음 22년간 4백종을 더 펴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저작을 하기 위해 청문의 차양을 내려 놓은 방에서 1주일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글쓰는 일로 지냈다. 그는 탄탄한 과학지식을 배경으로 매우 정확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글을 통해 과학대중화의 측면에서는 수천명의 과학자 못지 않은 위업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오늘날 로봇이 조업하는 조립공장을 이미 1939년에, 그리고 컴퓨터혁명을 1950년에 예언했다.

## 玄 源 福

(과학저널리스트/본지 편집위원)

### ‘책벌레’ 소년시절

1920년 구 소련에서 태어난 아시모프는 세살 때 유대인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하여 뉴욕시 브룩클린에 정착했다. 어린 아시모프는 부모가 차린 과자가게 한쪽 서가에 신간 잡지가 진열되면 쫓르르 달려가서 후다닥 읽어 버렸다.

그는 특히 잡지에 나오는 과학퀴즈에 열광했다. 아홉살밖에 안되는 아이작군은 아직 과학에 관해 배운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퀴즈 문제는 더욱 소년의 호기심을 부추겼다. 그의 부친은 어린 아들이 유행잡지 읽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아이작소년은 SF(공상과학소설)의 경우만은 과학적인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의 부친은 아들이 자라서 의사가 되기를 바랐었다.

1940년 의과대학 입시에 실패한 아시모프는 뉴욕시의 컬럼비아대학에 입학하여 화학을 전공하고 마침내 학위를 받은 뒤 보스턴대학 의대의 생화학강사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당시의 대학강사 봉급은 너무 적어 SF를 기고하여 받은 원고료로 모자라는 가계를 꾸려 나갔다.

아시모프가 다른 SF작가와 다른 점의 하나는 전업작가로 전환한 뒤에도 오랫동안 과학자로서 강단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시모프는 약관 18세 때인 1938년에 이미 SF잡지인 ‘어메이징’지에 기고한 처녀작품 ‘베스타에 남겨져서’

가 채택되어 다음해인 1939년 3월호에 실렸고 이어 5월호에는 두번째 작품 ‘최종무기’가 게재되었다. 당시 이 잡지는 한단어당 1센트를 쳐서 단편은 편당 50달러, 그리고 세번 나눠 실는 장편은 편당 6백달러를 지불했다.

### 출세작 ‘은하제국시리즈’

아시모프는 첫 작품이 팔린 뒤 3년만에 어엿한 작가가 되었다. 그때부터 작품을 쓰면 언제든지 잡지사에서 받아 주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만족스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업작가가 되기까지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아시모프는 전업작가가 된 뒤에도 대학 강의는 포기하지 않아 ‘교수’라는 존칭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시모프가 SF작가로서 이름을 떨치게 된 출세작은 1940년대에 나온 ‘은하제국 시리즈’와 ‘로봇 시리즈’다. 그가 ‘은하제국 시리즈’를 쓰게 된 것은 1941년 ‘아스타운딩 SF’ 편집장 존 캔벨을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뚫을 때 떠 오른 구상에서 비롯했다.

당시 그는 캔벨과 SF작품의 플롯을 내놓고 서로 토의를 한 뒤 그 결과로 작품을 썼다. 그런데 그날은 지하철을 탄 뒤에도 캔벨에게 내놓을 화두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비장의 방법을 쓰기로 했다.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아무 책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펴서 무작위로 한 문장을 읽은 뒤 정신을 집중하여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당시 그는 길버트 앤드 셸리번의 희곡집을 들고 있었는데 책을 펼쳤더니 근위보병 1연대의 윌리스이등병 앞에

요정의 여왕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림이 나타났다. 그의 머리 속에서는 근위대에서 군인들, 군대, 봉건제도 그리고 로마제국의 붕괴로 발전해 나갔다. 결국 캔벨을 만나서 은하제국의 붕괴를 화두로 끄집어 내어 토론을 거친 뒤 '은하제국 시리즈'를 집필하게 되었다.

아시모프는 7년동안 모두 8편으로 된 3부 연작을 썼는데 오늘날까지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판을 거듭하여 출간되고 있고 1966년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제24회 세계 SF대회에서 SF계의 가장 권위있는 '휴고상'을 받았다. 한편 로봇 시리즈는 이른바 '로봇공학 3원칙'을 먼저 정리한 뒤 이 원칙에 따라 10년간 9개의 단편을 썼고 그 뒤에도 두권의 장편을 썼다. 이 3원칙은 첫째, 로봇은 작위나 부작위로 인간을 해쳐서는 안되고 둘째,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셋째, 자신의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고소공포증 작가

아시모프는 '은하제국시리즈'에서 성간비행을 예사일처럼 다뤘으나 정작 본인은 고소공포증 때문에 평생에 꼭 한번 밖에 비행기를 탄 일이 없었다. 그 한번의 비행도 군에 복무할 때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명령위반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평생 외국도시로 여행한 일이 없고 거주지였던 뉴욕시에서 6백40km 이상 떨어진 곳에는 찾아간 일이 없다. 비행기여행을 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겠다고 제의했으나 6백40km 이상 떨어진 대학의 제의는 사절했다. 그런데도 그가 평생에 받은 명예박사학위는 14개에 이른다.

아시모프의 행동반경은 수천권의 책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서재에서 좁체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는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워드프로세서와 씨름하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글쓰는 일에 바쳤다. 그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고 운동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 1977년 마침내 심장병으로 쓰러졌고, 1983년에는 관상동맥 바이패스수술을 받은 뒤에는 운동기계를 들여놓고 운동을 했고 식성도 바꿨다. 말년에 그는 부인과 함께 자주 거리로 산책나가 5번가의 상점 유리창을 들여다보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

### 과학대중화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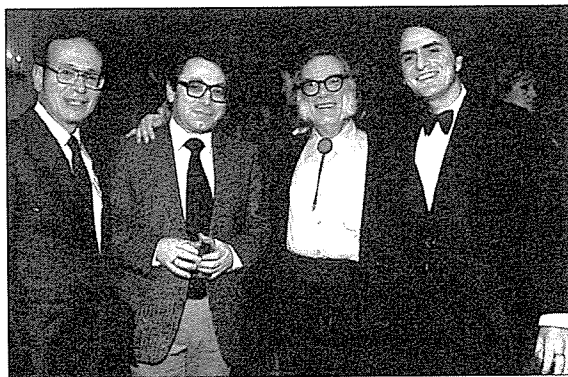
아시모프는 다른 사람이 갱신하기 어려운 다작의 저술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 뒤에는 사회에 대한 그의 사명감이 있었다. 그는 첫째, 국고에 의존하는 한 과학은 개인적인 관심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둘째,

과학은 더이상 공공의 복지나 재앙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며 과학의 진보는 싫건 좋건 문명을 파괴의 나락으로 빠뜨리거나 나락에서 구출하는 위치에 올라섰고 셋째, 과학문명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훈련을 받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의 진보가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과학의 동향에 관해 되도록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의 과학자·기술자를 산출하는 모체가 일반 국민이라고 할 때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많이 알아야 할 것은 당연하며 연구활동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간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지식을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해야 할 첫번째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작 저술가가 되는 전제조건으로 첫째, 쓰는 것이 즐거워야 하고 둘째, 쓰는 것 외에 즐거움이 있어서 안되며 셋째, 자신을 가져야 하고 넷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시모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은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 비서, 타이피스트, 조사소, 에이젠트, 비즈니스 매니저를 둔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인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 자기(아시모프)의 생각을 설명해야 하고 이들의 행동을 체크해야 하며 잘못했을 때는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할 때보다 시간이 3배나 더 걸린다는 것이다. **ST**



▲ 마리너2호 발사 20주년기념일 파티에 참석한 아시모프(오른쪽에서 2번째). 오른쪽은 최근 작고한 칼 세이건.